

#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I. 서론 .....	2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4
1. 청년의 지역정착 .....	4
2.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의 관계 .....	8
3.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	10
4. 본 연구의 차별성 .....	14
III. 연구설계 .....	15
1. 분석의 틀 .....	15
2. 분석대상 및 범위 .....	15
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	16
IV. 분석결과 .....	20
1.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	20
2. 청년의 지역정착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	23
3. 청년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인식 분석결과 .....	25
V. 결론 .....	28
VI. 참고문헌 .....	30



## 서론

지역의 인구감소 및 쇠퇴로 인한 지역소멸의 우려와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의한 유출로 파악하고 청년인구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즉,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층 확보를 주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정보라, 2022). 대표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저출산 정책, 청년일자리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관련하여 최근에는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주도하여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의 5개년 동안 27개 청년마을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12개 청년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의 지역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중요성과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파악된 연구는 미흡하다. 청년마을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십억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보다 더 나은 사업 설계를 위해서는 수요자 입장인 청년들의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인식과 개선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정주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지역인구 전체와 청년대상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우선 전자와 관련된 연구는 지역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주성,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인구유입 및 유출 요인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이미애·이승종, 2016; 이지은 외, 2020; 이희창 외, 2004). 이들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정주를 위해 공공서비스, 주거환경, 이웃관계 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는 세대별로 정주성, 삶의 질, 인구유입 및 유출 요인 등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고려, 특히 청년세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한편, 청년의 지역정주와 관련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의 지역 정주에 있어서 청년개인의 특성,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 보건·복지, 일자리, 사회적 관계망 등을 고려할 필요성을 주장한다(김화연·이대웅, 2022; 박진경·김도형, 2020; 엄창욱 외, 2018). 그러나 선행연구는 지역적 맥락에 따라 청년의 지역 이주 및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또는 물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청년들의 지역정착에서 기존 주민과의 관계 및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관계망 또는 네트워크 측면이 중요할 수 있음에도(김훈규, 2016; 정하나, 2022) 이러한 네트워크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청년의 지역정착을 분석하기 위해서 청년의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정주에 대한 영향요인과 네트워크 측면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청년의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네트워크 관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의 질문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은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대상 주요 역점사업으로 시행 중인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청년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 기반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질문을 통해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청년의 지역 정착에 대한 영향요인과 네트워크 측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 및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사례분석은 2023년을 기준으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종료 또는 시행 중인

39개 마을 중에서 13개 지역을 사례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대상 선정은 지역의 청년인구의 감소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된 시기, 새롭고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는 지역, 사업종류 등과 같은 시기, 외부의 평가, 사업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구감소가 큰 지역인 경남, 경북, 전남 지역의 청년마을들을 포함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된 시기별로 2018-2020년 선정 단체, 2021년 선정 단체, 2022년 선정 단체, 2023년 선정 단체들을 각각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언론을 통해 지역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단체로 평가 및 수상한 청년단체를 고려하였다.<sup>1)</sup>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청년단체들에서 활동 유형에서 문화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중에서도 충남 공주의 자유도, 경남 하동의 오히려 하동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기업 창업, IT 개발 및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수집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정책수요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주민, 지역활동가 등)으로 확대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수집된 자료들은 텍스트 중심의 사례분석뿐만 아니라 언어네트워크분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에서 네트워크 이론, 청년의 지역정책과 네트워크 간의 관계,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연구설계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질문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과 절차 등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결과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질문에 대한 검증결과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위의 분석결과들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등과 같은 정책들이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의 실질적인 인식과 행태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

1) 경상북도는 선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마을이 확산되고 발전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2년 지역발전 및 지역혁신 유공(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경북의 달빛탐사대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사업을 마무리했으며, 후속사업으로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최현영, 2022.12.07.). 전남 관창마을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새롭고 혁신적인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2019년에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로 선정되었다(관창마을 홈페이지, <https://dontworryvillage.com/>).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 청년의 지역정착

청년의 지역정착과 관련하여 청년인구의 지역정착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역의 청년인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청년인구의 지역정착

##### (1) 청년의 지역정착에 대한 개념

청년인구를 논의함에 있어 청년의 범위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률과 조례상으로 제시되는 청년인구의 범위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만 20세에서 만 39세의 인구를 포함한다.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인구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청년 관련 가장 핵심적인 법률인 청년기본법은 만 39세에서 만 34세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만 15세에서 만 20세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별 조례에서는 서울, 울산, 세종, 경기도는 만 15세에서 만 34세, 충북과 경북은 만 15세에서 만 39세, 부산, 강원, 충남은 만 18세에서 만 34세, 전북과 전남은 만 18세에서 만 39세, 경남과 제주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박진경 · 김도형, 2020). 참고로 해외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의 경우에 청년을 15~24세, 유럽연합(EU)은 대체로 15~29세 등으로 규정한다(박진경 · 김도형, 2020: 12). 이상과 같이 청년인구의 범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국내외적으로도 합의된 연령대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역정착은 일반적으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역정착은 정주의사, 정주의식, 정주성, 정주의향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며, 이러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희창 외(2004)는 정주의식을 개인이 그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살겠다는 의지로 정의한다. 김화연 · 이대웅(2022)은 정주의사를 타 지역으로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로 보았다. 이경영 · 정문기(2021)는 정주성을 현재 거주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청년인구의 지역정착을 “청년인구가 현재 거주 지역의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청년인구의 지역정착 유형은 크게 U턴형, J턴형, I턴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U턴형은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도시로 이주하기 이전의 동일 시·군지역으로 이주한 유형이고, J턴형은 도시로 이주하기 이전지역과는 상이한 시·군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유형, I턴형은 도시에서 지역으로 이주한 유형을 의미한다(이철우, 2015).

청년인구의 지역정착은 단계별로 탐색, 이주, 정착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탐색단계는 지역정착의 관심을 갖는 단계로, 지역의 존재를 알고 지역살이 정보를 얻거나 경험하는 단계이며, 가벼운 교류나 체험을 통해 지역살이가 자신에게 맞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탐색하는 단계이다(듣는연구소,

2021). 이주단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이동하여 주거지를 옮기고 거주한 단계로 아직 이동의 지가 있는 단계이며, 정착단계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되어 살아가는 단계이다(듣는연구소, 2021).

## (2) 청년의 지역정착에 관한 선행연구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사가 낮다는 것은 이주 의도가 강하다는 것으로 인구유출 가능성이 높고, 지역민으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화연·이대웅, 2022; 이희창 외, 2004).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사를 높이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인구의 유출로 파악하고,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층 확보를 주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역정착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이경영·정문기, 2021; 정보라, 2022).

관련하여, 청년인구의 지역정착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청년의 지역정착은 많은 연구에서 일자리,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 청년참여, 청년정책만족도, 보건 및 복지 여건, 자연환경인프라, 청년공간, 사회 관계망 등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고가온 외, 2019; 김화연·이대웅, 2022; 박진경·김도형, 2020; 엄창옥 외, 2018; 이경영·정문기, 2016). 청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및 일자리 인프라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건 및 의료 인프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정착은 높아질 수 있다(김화연·이대웅, 2022). 또한, 청년의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지역정착도 높아질 수 있다. 즉, 지방정부의 서비스 중에서 주택지원, 주거환경, 경제활동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청년의 지역정착 의사도 높아질 수 있다(이경영·정문기, 2021). 특히,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해서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친구관계, 거주기간 등과 같은 관계적 요인, 청년센터 활용의사, 지역청년정책 참여의지와 같은 주체적 요인, 삶의 만족도 등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엄창옥 외, 2018).

〈표 1〉 청년인구의 지역정착과 관련한 선행연구

연구자	대상지역	영향요인	분석방법	분석결과
고가온(2019)	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공간 만족도</li> <li>공동체意識</li> </ul>	다중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공간만족도는 정주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li> </ul>
강유미(2022)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지원조례 제·개정 유무</li> <li>청년정책부서 유무</li> <li>청년 1인당 청년사업 지출</li> </ul>	다중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 청년정책이 청년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li> </ul>
김화연·이대웅(2022)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정책 만족도</li> <li>생활인프라 만족도</li> </ul>	로지스틱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신지와 거주지가 다른 청년 영향요인: 청년정책, 경제활동 및 일자리 여건, 보건 및 복지 여건</li> <li>출신지와 거주지가 같은 청년 영향요인: 자연환경 인프라</li> </ul>
박진경·김도형(2020)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생활비</li> <li>수도권 접근성</li> <li>지역 내 교통환경</li> <li>문화여건시설</li> <li>이주지원정책</li> </ul>	컨조인트 분석, 심층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지원정책, 주거/생활비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li> <li>지역별로 사업, 사람, 제도요인의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li> </ul>
엄창옥 외(2018)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조건</li> <li>문화적 조건</li> <li>관계적 조건</li> <li>주체적 조건</li> </ul>	로지스틱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의 지방 유출과 귀환의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관계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li> <li>삶의 만족도가 청년의 정착과 귀환에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남</li> </ul>

연구자	대상지역	영향요인	분석방법	분석결과
이경영 · 정문기(2021)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지원 서비스</li> <li>주거환경 서비스</li> <li>경제활동 서비스</li> <li>사회복지 서비스</li> </ul>	조절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지원, 주거환경, 경제활동서비스가 지역주민의 정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li> <li>경제력 상위지역에서는 경제활동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li> <li>경제력 하위지역에서는 주택지원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li> </ul>

정리하면, 청년인구의 지역정착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인구의 지역정착에서 청년공간 만족도, 공동체 의식, 청년지원조례 재정 유무, 청년정책 만족도, 생활인프라 만족도, 주거/생활비, 수도권 접근성, 지역 내 교통시설, 문화여건시설, 이주지원정책, 경제적 조건, 문화적 조건, 관계적 조건, 주체적 조건, 주택지원 서비스, 주거환경 서비스, 경제활동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인구의 지역정착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적 맥락과 정책적 맥락을 고려하여 지역정착과 관련한 영향요인들의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요인, 물리적인 요인, 정책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고 양적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관계적인 요인이 지역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행동과 제도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들(social relations)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Granovetter, 1985). Granovetter(1985)의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과 배태성(embeddedness)에 관한 이론적 가정에 의하면, 행위자의 행동과 의도는 개별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개인에게 제약과 기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더 넓은 환경 내에 완전히 배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역에서는 관계와 네트워크가 가지는 의미가 수도권 또는 대도시 지역보다 크다. 이에 따라, 좋은 일자리와 주거지가 있어도 관계의 정도에 따라, 일자리와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와 특성이 다양하듯이 지역의 맥락은 각 지역별로도 다르며, 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도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대상 주요 역점사업으로 시행 중인 청년마을만들기 사업도 지역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 지역 및 정책적 맥락의 다양성이 청년인구의 지역정착 연구에서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경제적 요인, 물리적 요인들이 지역과 정책의 맥락 안에서 관계를 통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관련한 영향요인과 네트워크 측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청년인구의 지역 현황

앞서 논의하였듯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청년인구로 설정하고 있는 만20에서 39세까지 주민등록인구의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별로는 2018년도 대비 2022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청년인구가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는 2018년도 대비 2022년도에 4.3%의 청년인구가 감소했다. 지역별로 울산광역시 9.5%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9.2%, 경상북도 8.2%, 전라남도 7.9%, 전라북도 7.4%, 부산광역시 7.3%, 대구광역시 7.0%, 충청남도 6.1%, 인천광역시 4.8%, 대전광역시 4.8%, 강원특별자치도 4.7%, 충청북도 4.4%, 광주광역시 4.0%, 제주특별자치도 3.9%, 서울특별시 3.5%, 경기도 0.4% 순으로 감소했다. 즉,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경남, 경북, 전남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가 가장 크며, 반대로 서울, 경기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가 가장 작다. 이는 지역별로 청년인구 감소의 격차가 크며, 주로 비수도권 또는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가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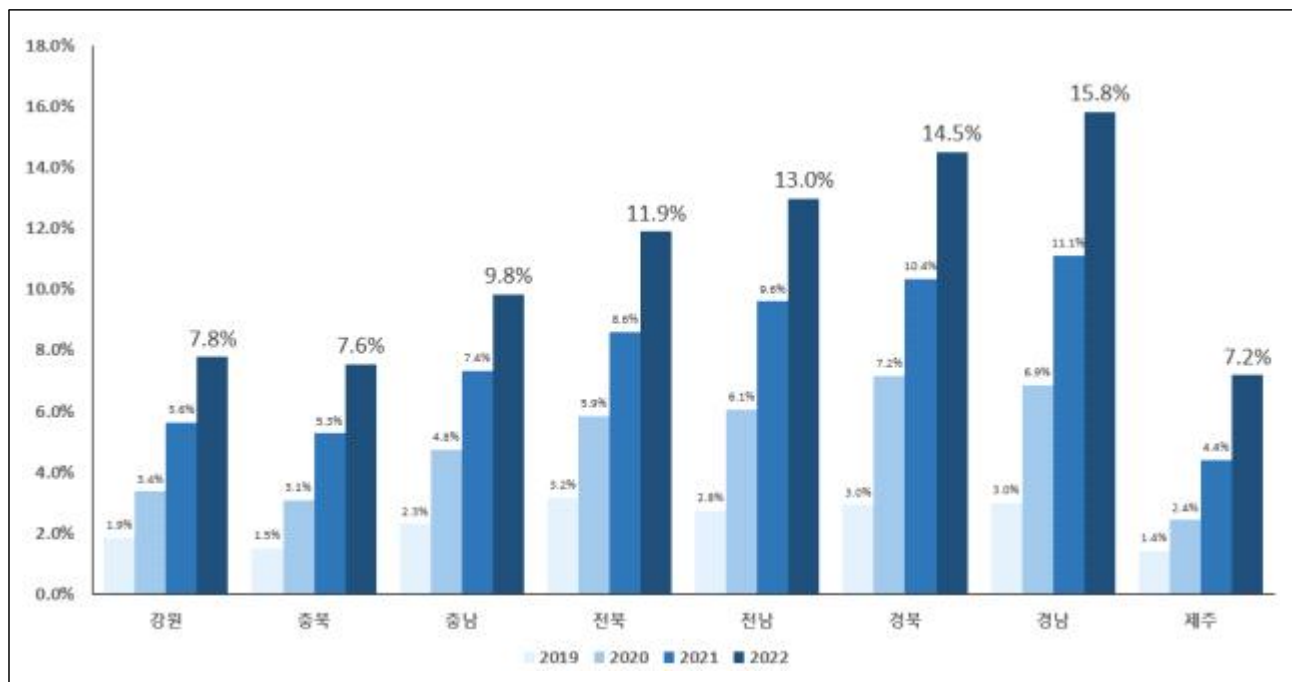
〈표 2〉 지역별 청년인구 현황(2018-2022년도)

(단위: 명)

지역별	연도별					2018년대비 평균 증감율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	2,998,560	2,966,582	2,935,517	2,861,556	2,815,291	-4.3%
부산	899,448	871,859	850,001	820,849	791,825	-3.5%
대구	648,823	629,627	615,844	593,786	573,820	-7.3%
인천	843,463	828,797	807,692	793,142	781,788	-7.0%
광주	406,163	400,391	395,242	387,661	376,036	-4.8%
대전	422,995	413,109	406,576	399,066	391,878	-4.0%
울산	319,567	308,880	296,274	282,313	268,844	-4.8%
세종	92,412	97,804	98,945	100,229	99,462	-9.5%
경기	3,698,625	3,696,522	3,715,307	3,698,716	3,619,591	7.2%
강원	358,469	351,771	346,364	338,241	330,559	-0.4%
충북	406,509	400,285	393,886	385,022	375,742	-4.7%
충남	537,386	524,990	511,798	497,862	484,574	-4.4%
전북	425,428	411,844	400,476	388,760	374,789	-6.1%
전남	411,745	400,334	386,773	372,163	358,232	-7.4%
경북	619,667	601,357	575,280	555,496	529,688	-7.9%
경남	835,415	810,243	777,994	742,547	703,314	-8.7%
제주	169,441	166,985	165,301	161,949	157,259	-9.2%
전국	14,094,116	13,881,380	13,679,270	13,379,358	13,032,692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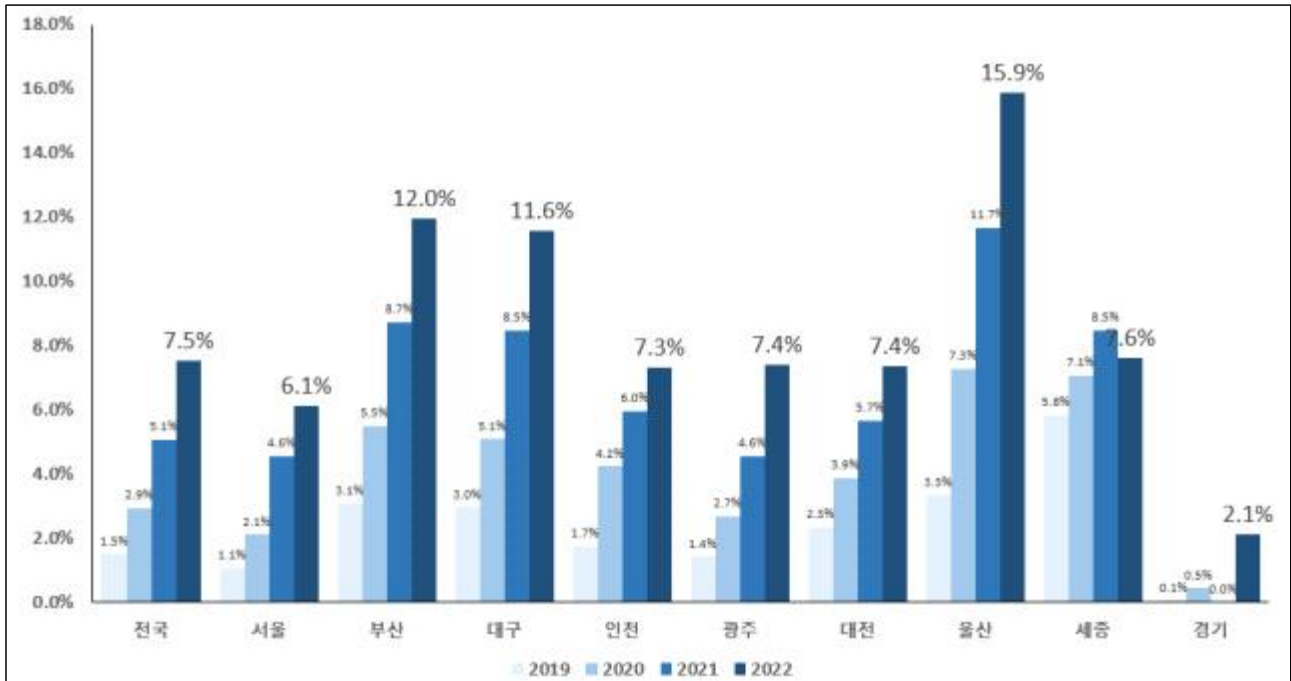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3.10.04)

〈그림 1〉 2018년도 대비 지역별 청년인구 감소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3.10.04)

〈그림 2〉 2018년도 대비 지역별 청년인구 감소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3.10.04)

## 2 청년의 지역정책과 네트워크의 관계

### 1) 네트워크 이론

네트워크(network)는 일반적으로 한 단위가 형식적인 지위에 따라 다른 단위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 어떤 형태의 구조적 상호의존성으로 묶여 있는 여러 조직을 의미한다(O'Toole, 1997: 45). 또는, 네트워크는 정보, 자원, 에너지, 그리고 권력 등의 이동을 위한 부분 혹은 노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안희남 · 이승철, 2012: 233).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대표적으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과 사회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 SNT)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접근관점에 따라 관계에 대한 이해, 주요 접근방법, 행위자, 주요 관심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표 3〉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사회 네트워크 이론의 비교

구 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	사회 네트워크 이론(SNT)
관계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li> <li>• 네트워크의 경계가 끊임없이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를 분류하는 구체적인 정의와 시스템</li> <li>• 행위자 간의 관계에 구체적인 한계가 있음</li> </ul>
주요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적 방법(여러 측면에서 복잡성을 해석)</li> <li>• 개방적이고 질적인 행위자 추적 접근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 방법(가설을 검증하고 단순화하고 시각화)</li> <li>• 네트워크 정의에 따라 또는 표본조사에 따라 피험자를 선정하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관계를 파악</li> </ul>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및 비인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li> </ul>
주요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성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li> </ul>

출처: Vicsek et al.(2016: 90-92)



우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은 관계를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네트워크의 경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Vicsek et al., 2016).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주로 여러 측면의 복잡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질적 방법을 활용하며,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Vicsek et al., 2016).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개별 인간 또는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능력은 독립된 각 행위자의 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의 결과, 즉 '관계적 효과'로 이해될 수 있다(이수안, 2017: 231). 반면에, 사회 네트워크 이론(SNT)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이들 관계의 패턴으로부터 의미 있는 구조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이론이다(곽기영, 2017: 6-7). 사회 네트워크 이론은 관계를 분류하는 구체적인 정의와 시스템으로 관계를 이해하며, 이를 위해 양적 방법을 활용한다(Vicsek et al., 2016). 사회 네트워크 이론은 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요약하고 파악하는 측면에 관심을 가진다(Vicsek et al., 2016).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융합하는 것은 새로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할 수 있다(Vicsek et al., 2016).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장점은 네트워크의 구성과 생성 과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민간기업, 이익단체, 전문가집단, 시민대표 등을 포괄하는 행위자들이 로컬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소순창·유채원, 2005). 사회 네트워크 이론의 장점은 정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주요 측면을 요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Vicsek et al., 2016). 예를 들어, 정책학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정책과정분석에 적용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해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김순양, 2010). 즉, 두 가지 관점을 융합하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구성과 생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주요 측면을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Vicsek et al.(2016)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형성과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네트워크 관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과정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회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하여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는 서로 중요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엄창옥 외, 2018). 행동과 제도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들(social relations)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Granovetter, 1985). Granovetter(1985)의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과 배태성(embeddedness)에 관한 이론적 가정에 의하면, 행위자의 행동과 의도는 개별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개인에게 제약과 기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더 넓은 환경 내에 완전히 배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배태성은 사람과 조직의 행동이 의무, 신뢰, 상호성의 규범을 낳는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규제되고, 형성되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안희남·이승철, 2012).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에 의한 제약은 사회적 응집력과 사회적 동질성에 대한 약한 유대(weak ties)와 강한 유대(strong ties)의 존재 및 분포와 관련된다(Granovetter, 1973). 즉, 사회적 응집력이 클수록 미래 거주지에 대한 의향의 자유도가 작아짐과 동시에 응집력 있는 집단에 따라 유사한 유형의 의향을 지향하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Hosnedlová, 2017). 따라서 청년의 지역정착은 사회적 관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정착과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네트워크가 지역정착과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에서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snedlová(2017)은 배태성의 개념을 통해 우크라이나 이민자의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정착 의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계적 배태성의 정도가 클수록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의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yan et al.(2008)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원천으로서 이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이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정착에 중요하지만, 이주민들이 지역의 밀집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러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엄창욱 외(2018)은 대구지역의 청년들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을 조사하여,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관계적 요인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 내 청년공동체를 주도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또는 전문가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지역 또는 마을 내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이다(김훈규, 2016). 즉, 청년세대가 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 중 하나가 지역 또는 지역주민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황원규, 2022). 또한, 농·어업 등 지역 산업활동에 익숙치 않은 청년들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의 도움이 없이는 각종 경제활동이나 기타 활동들을 이어가기 힘들다. 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문화적-사회적 배척 또는 배제를 당하는 경우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정하나, 2022).

정리하면,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네트워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위자의 행동과 의도는 배태성의 개념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주민들의 네트워크는 지역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청년의 네트워크 정도에 따른 사회적 응집력에 따라서 지역정착의 의향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네트워크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3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 1)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개요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행정안전부, 2022). 다시 말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의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도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정보라, 2022: 20).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목포의 관창마을을 시작으로 2019년도에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2020년도에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를 선정하였으며, 매년 12개 청년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대상지역별로 지원금은 3년간 총 6억 원이 지원되며, 매년 2억 원씩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차등지급한다. 이러한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공모자격은 청년단체·기업이며, 대표가 청년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의 비율이 50%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청년의 지역 탐색·조사,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 확보, 지역 내 외부와 관계맺기, 홍보 등에 대한 지역변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 2)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현황

다음의 <표 4>와 같이 현재 전국에 39개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2018년에서 2020년도에 3개의 단체에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 이후로 2023년 현재까지 매년 12개의 단체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고 있다.

〈표 4〉 2023년 기준 전국 청년마을 현황

연번	지역명	사업연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명	유형분류
1	경북 문경	2018-2020	달빛탐사대	문화활동 중심형
2	전남 목포	2018-2020	관찰아마을	문화활동 중심형
3	충남 서천	2018-2020	삶기술학교	문화활동 중심형
4	강원 강릉	2021	강릉 살자	문화활동 중심형
5	경남 거제	2021	아웃도어 아일랜드	문화활동 중심형
6	경북 상주	2021	이인삼각	문화활동 중심형
7	경북 영덕	2021	뚜벅이 마을	문화활동 중심형
8	부산 동구	2021	이바구마을	문화활동 중심형
9	울산 울주	2021	발효醱酵마을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10	인천 강화	2021	강화유니버스	문화활동 중심형
11	전남 신안	2021	주섬주섬 마을	문화활동 중심형
12	전북 완주	2021	다음타운	문화활동 중심형
13	충남 공주	2021	자유도	문화활동 중심형
14	충남 청양	2021	로컬몬스터	문화활동 중심형
15	충북 괴산	2021	뮌하농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16	강원 속초	2022	속초 라이프밸리	문화활동 중심형
17	강원 영월	2022	발명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18	강원 태백	2022	광광스토리지	문화활동 중심형
19	경남 하동	2022	오히려 하동	문화활동 중심형
20	경남 함양	2022	고마워, 할매	문화활동 중심형
21	경북 경주	2022	가자미마을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22	경북 예천	2022	생텨마을	문화활동 중심형
23	경북 의성	2022	나만의-성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24	전남 강진	2022	병영창작상단	문화활동 중심형
25	전북 군산	2022	술익는 마을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26	충남 아산	2022	도고(DOGO)온천	문화활동 중심형
27	충남 태안	2022	오락발전소	문화활동중심형
28	충남 홍성	2023	집단지성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29	충남 예산	2023	케미스테이	문화활동중심형
30	경남 의령	2023	홍의별곡	문화활동중심형
31	경북 고령	2023	뮤즈타운	문화활동중심형
32	경북 영천	2023	취하리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33	전남 고흥	2023	신촌꿈이룸마을	문화활동중심형
34	전남 영암	2023	허밍스테이션	문화활동중심형
35	전북 익산	2023	지구장이마을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36	충북 진천	2023	롤빌리지 진천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37	충북 보은	2023	라이더타운회인호오	문화활동중심형
38	세종 연서	2023	농땀이월드	문화활동 중심형
39	강원 홍천	2023	와썹타운	문화활동중심형

출처: 로컬로 홈페이지(<https://localro.co.kr/>), 검색일: 23.10.04

이러한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크게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이 2023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39개의 단체(100.0%) 중에서 경북이 8개(2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남 7개(17.9%), 강원과 전남 각각 5개(12.8%), 경남 4개(10.3%), 전북과 충북 각각 3개(7.7%), 부산, 세종, 울산, 인천 각각 1개(2.6%)의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서 2020년도에 전체 3개 단체 중에 경북, 전남, 충남에 각각 1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2021년도에는 전체 12개 마을 중에서 경북과 충남 지역이 2개 단체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2022년도에는 전체 12개 마을 중에서 강원과 경북지역이 각각 3개의 단체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2023년도에는 전체 12개 마을 중에서 경북, 전남, 충남, 충북지역이 각각 2개의 단체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이는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서 경북지역의 청년단체들이 많이 선정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다양한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선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 %)

구 분	연도별 구분				합계
	2018-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강원	0(0.0)	1(2.6)	3(7.7)	1(2.6)	5(12.8)
경남	0(0.0)	1(2.6)	2(5.1)	1(2.6)	4(10.3)
경북	1(2.6)	2(5.1)	3(7.7)	2(5.1)	8(20.5)
부산	0(0.0)	1(2.6)	0(0.0)	0(0.0)	1(2.6)
세종	0(0.0)	0(0.0)	0(0.0)	1(2.6)	1(2.6)
울산	0(0.0)	1(2.6)	0(0.0)	0(0.0)	1(2.6)
인천	0(0.0)	1(2.6)	0(0.0)	0(0.0)	1(2.6)
전남	1(2.6)	1(2.6)	1(2.6)	2(5.1)	5(12.8)
전북	0(0.0)	1(2.6)	1(2.6)	1(2.6)	3(7.7)
충남	1(2.6)	2(5.1)	2(5.1)	2(5.1)	7(17.9)
충북	0(0.0)	1(2.6)	0(0.0)	2(5.1)	3(7.7)
합 계	3(7.7)	12(30.8)	12(30.8)	12(30.8)	39(100.0)

출처: 연구자가 직접 통계를 확인하여 작성함

다음으로 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과 문화활동 중심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은 청년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 특산품을 주요 상품으로 창업하여 홍보하고 판매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는 유형이다. 문화활동 중심형은 청년단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타지역 또는 지역내의 인구에게 여행, 예술 등과 관련한 문화활동을 체험시키는 활동 유형이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표 6>과 같이 전체 39개의 단체(100.0%) 중에서 10개(25.6%)의 단체가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으로, 29개(74.4%)의 단체가 문화활동 중심형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는 청년단체가 주로 문화활동 중심형으로 운영되었으나, 2021년도부터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의 청년단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6〉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유형의 시기별 현황

(단위: 개, %)

구 분	연도별 구분				합계
	2018-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0(0.0)	2(5.1)	4(10.3)	4(10.3)	10(25.6)
문화활동 중심형	3(7.7)	10(25.6)	8(20.5)	8(20.5)	29(74.4)
합 계	3(7.7)	12(30.8)	12(30.8)	12(30.8)	39(100.0)

출처: 연구자가 직접 작성

지역에서는 〈표 7〉과 같이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남지역의 청년단체가 주로 문화활동 중심형으로, 울산, 전북, 충북지역의 청년단체는 주로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유형별로는 문화활동 중심형의 청년단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의 청년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문화활동 중심형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의 비율이 높은 지역 편차가 있다.

〈표 7〉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유형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 %)

구 분	유형별 구분		합계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	문화활동 중심형	
강원	1(2.6)	4(10.3)	5(12.8)
경남	0(0.0)	4(10.3)	4(10.3)
경북	3(7.7)	5(12.8)	8(20.5)
부산	0(0.0)	1(2.6)	1(2.6)
세종	0(0.0)	1(2.6)	1(2.6)
울산	1(2.6)	0(0.0)	1(2.6)
인천	0(0.0)	1(2.6)	1(2.6)
전남	0(0.0)	5(12.8)	5(12.8)
전북	2(5.1)	1(2.6)	3(7.7)
충남	1(2.6)	6(15.4)	7(17.9)
충북	2(5.1)	1(2.6)	3(7.7)
합 계	10(25.6)	29(74.4)	39(100.0)

출처: 연구자가 직접 작성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첫째,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서 경북지역의 청년단체들이 많이 선정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다양한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선정되고 있다. 둘째, 유형별로는 문화활동 중심형의 청년단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의 청년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문화활동 중심형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농산어촌 특산품 중심형의 비율이 높은 지역 편차가 있다.

## 4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의 대상지역을 분석한다. 청년마을만들기는 개인이 아닌 청년들의 공동체 또는 단체(협동조합, 기업 등) 등 집합단위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마을 또는 지역과 연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간 사업경험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이주 및 정착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청년의 지역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의 지역정착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완주, 강원, 대구, 전북 등과 같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고가온, 2019; 김화연·이대웅, 2022; 엄창옥 외, 2018; 이경영·정문기, 2021),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강유미, 2022; 박진경·김도형, 2022)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는 지역적 맥락에 따라 청년의 지역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복잡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정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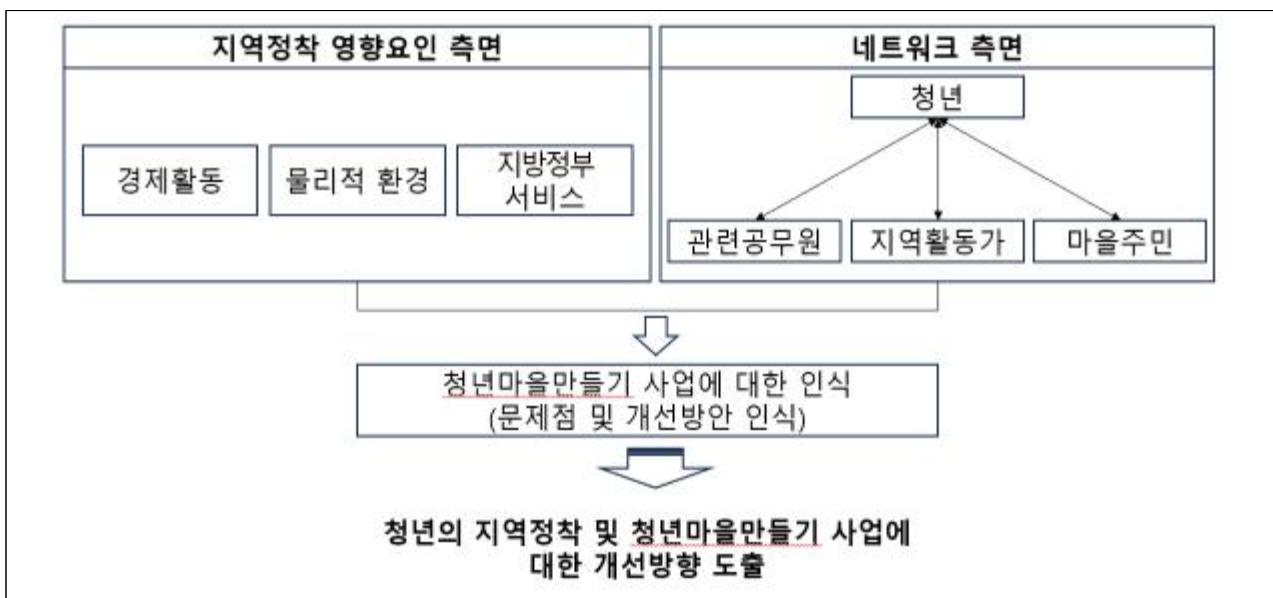
셋째, 본 연구는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네트워크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의 지역정착은 일자리,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 청년참여, 청년정책만족도, 보건 및 복지여건, 자연환경인프라, 청년공간, 사회관계망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가온 외, 2019; 김화연·이대웅, 2022; 박진경·김도형, 2020; 엄창옥 외, 2018; 이경영·정문기, 2016).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관계적 속성을 가지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엄창옥 외, 2018; 김훈규, 2016; 정하나, 2022; 황원규, 2022),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네트워크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네트워크 관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의 맥락에서 평가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관련하여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청년의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관련된 선행연구(고가운, 2019; 강유미, 2022; 김화연·이대웅, 2022; 박진경·김도형, 2020; 엄창욱 외, 2018; 이경영·정문기, 2021)들을 바탕으로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측면은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 관련 공무원, 지역활동가 등의 네트워크 관계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 주민, 관련 공무원, 지역활동가로 구분하여 네트워크의 형성과 구조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측면은 청년들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 분석의 틀



## 2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청년단체들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경북 문경의 달빛탐사대, 전남 목포의 갯마을, 경북 영덕의 두백마을, 부산 동구의 이바구마을, 충남 공주의 자유도, 충북 괴산의 뽕하농, 경남 하동의 오히려 하동,

경남 함양의 고마워 할매, 경북 경주의 가자미마을, 경북의성의 나만의-성, 충남 아산의 도고(DOGO)온천, 충남 홍성의 집단지성, 전남고흥의 신촌꿈이룸마을 등 총 13개 지역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대상 선정은 전체 39개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대상인 청년단체 중에서 인터뷰를 수락한 청년단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례대상 선정은 지역의 청년인구의 감소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된 시기, 새롭고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는 지역 등과 같은 시기, 외부의 평가를 함께 고려하였다.<sup>2)</sup>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청년단체들에서 활동 유형에서 문화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중에서도 충남 공주의 자유도, 경남 하동의 오히려 하동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기업 창업, IT 개발 및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수집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정책수요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주민, 지역활동가 등)으로 확대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수집된 자료들은 텍스트 중심의 사례분석뿐만 아니라 언어네트워크분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년의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네트워크 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과 관계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IDI)은 일대일 인터뷰 장식으로 장기간(30분 이상) 동안 연구자(interviewer)와 인터뷰 대상자(interviewee) 간의 비구조화(혹은 반구조화 질문지)로 인터뷰를 시행하는 방법이다(윤택림, 2004). 심층인터뷰는 사소하거나 예외적인 특성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파악에 적합한 조사방법이다(윤택림, 2004). 심층면접은 총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Guest(2006)는 심층면접에서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해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 간에 공통된 인식, 신념,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목표라면 12명의 표본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소 12명 이상의 심층면접 대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제 인터뷰는 2023년 10-11월 사이에 실시되었고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대면인터뷰의 진행이다. 대면인터뷰는 참여연구진 2명이 참석하여 사회자와 기록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자의 역할을 수행한 참여연구진은 미리 정해진 질문을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기록자의 역할을 수행한 참여연구진은 노트북을 이용해 면접내용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선호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은 줌(ZOOM)을 통하는 방식과 서면방식을 병행하였다. 온라인 방식의 인터뷰에서 줌을 통하는 방식에서는 사회자의 역할과 기록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연구진이 접속하여 미리 정해진 질문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허락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녹화하여 관련 내용들을 기록하였다. 서면방식의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인터뷰지를 제공하고 작성된 서면 인터뷰지를 회신받았으며, 참여연구진이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전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 연구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8>과 같다.<sup>3)</sup>

2) 경상북도는 선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마을이 확산되고 발전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2년 지역발전 및 지역혁신 유공(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경북의 달빛탐사대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사업을 마무리했으며, 후속사업으로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최현영, 2022.12.07.). 전남 관창아 마을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새롭고 혁신적인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2019년에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로 선정되었다(관창아마을 홈페이지, <https://dontworryvillage.com/>).



〈표 8〉 인터뷰 대상자

연번	대상자	소속 및 활동	성별	연령	거주기간	비고
1	청년단체A	청년단체 구성원	여	30대	4년 이상	-
2	청년단체B	청년단체 구성원	남	30대	3년 이상	-
3	청년단체C	청년단체 구성원	남	30대	6년 이상	-
4	청년단체D	청년단체 구성원	남	30대	6년 이상	-
5	청년단체E	청년단체 구성원	여	30대	4년 이상	
6	청년단체F	청년단체 구성원	여	30대	6년 이상	
7	청년단체G	청년단체 구성원	남	30대	6년 이상	
8	청년단체H	청년단체 구성원	남	30대	6년 이상	
9	청년단체I	청년단체 구성원	여	30대	5년 이상	
10	청년단체J	청년단체 구성원	여	30대	5년 이상	
11	청년단체K	청년단체 구성원	남	30대	4년 이상	
12	청년단체L	청년단체 구성원	남	30대	4년 이상	
13	청년단체M	청년단체 구성원	남	30대	3년 이상	
14	청년단체N	청년단체 구성원	여	30대	3년 이상	
15	지역청년A	건축사 운영	남	30대	4년 이상	
16	지역청년B	음식점 운영	남	30대	2년 이상	-
17	지역청년C	제과점 운영	여	40대	3년 이상	
18	지역청년D	지역활동가	여	40대	10년 이상	
19	활동가A	청년활동가	여	30대	-	-
20	활동가B	청년활동가	여	30대	-	-
21	전문가A	교수	남	50대	-	-
22	전문가B	연구원	남	40대	-	-
23	전문가C	연구교수	여	30대	-	-
24	전문가D	연구원	여	30대	-	-
25	전문가E	연구원	여	30대	-	-

심층면접 질문은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에 관한 영역,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에 관한 영역, 청년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인식에 대한 세 개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에 관한 영역에서는 ‘귀하는 왜 이 지역을 선택하셨나요?, 이 지역으로 정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로 구성하였다.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에 관한 영역은 ‘귀하가 속한 조직(청년단체) 구성원 간 관계는 어떠십니까?’, ‘귀하와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정착 당시 관계와 현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로 접촉하는 주민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도움을 받았다면 무엇입니까? 주민과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귀하(또는 조직)는 지역 공무원, 활동가 등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기존 방문객 또는 외부 조직(타 지역의 청년공동체 등)과의 관계 또는 네트워크는 어떠십니까? 관계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외부 조직들이

3)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지역명과 소속 및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참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로 구성하였다. 청년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인식 영역에서는 ‘귀하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가치와 역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불어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추가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로 구성하였다.

〈표 9〉 인터뷰질문내용(예시)

연구영역	세부 질문 내용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에 관한 영역	① 귀하는 왜 이 지역을 선택하셨나요?, 이 지역으로 정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출생지역과 이 곳의 정착 전 활동지역 등 포함)
	②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마을 또는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인구감소, 쇠퇴 등), 마을 또는 지역의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에 관한 영역	① 귀하가 속한 조직(청년단체) 구성원 간 관계는 어떠십니까?
	② 귀하와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정착 당시 관계와 현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로 접촉하는 주민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도움을 받았다면 무엇입니까? 주민과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③ 귀하(또는 조직)는 지역 공무원, 활동가 등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④ 기존 방문객 또는 외부 조직(타 지역의 청년공동체 등)과의 관계 또는 네트워크는 어떠하십니까? 관계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외부 조직들이 참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⑤ 이상의 관계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문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인식 영역	① 귀하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가치와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정부의 지원(재정지원 포함)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귀하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불어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에 관한 영역,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에 관한 영역,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의 평가가 인식 영역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주요 의미를 파악하여 해석하기 위해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비정형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와 형태소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정제하여 유용한 단어를 추출하고, 추출한 단어를 바탕으로 의미맥락을 찾는 방법이다(조성연, 2021).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은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지만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주요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박치성·정지원, 2013). 일반적인 심층면접 자료의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코딩해야하기 때문에 주요 의미가 누락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했을 때는 연구자가 자료의 코딩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다(Roberts et al., 2014). 본 연구에서 확보한 자료들에서 주요 의미가 누락되지 않으면서 의미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분석절차는 다음의 〈표 10〉과 같으며, 자

료 전처리 및 빈도분석, 동시출현빈도 도출, 언어네트워크 분석 단계로 진행하였다. 자료 전처리 과정에서 추출된 단어 수는 261개에서 2022개이며,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된 단어들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 지수 도출을 위해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였다.

〈표 10〉 분석절차

분석단계	내 용
1단계	자료 전처리 및 빈도분석 (형태소 추출, 중복단어 처리, 불용어 제거, 최소분석단위 설정)
↓	
2단계	동시출현빈도 도출 (동시출현빈도 3회 이상 단어 추출)
↓	
3단계	언어네트워크 분석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지수를 바탕으로 한 언어네트워크 그래프 도출)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자료와 인터뷰 대상자들을 활용하였다.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연구자료,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이론 등에 있어서 세 가지 이상의 자료를 상호 교차적으로 비교하는 삼각검증을 활용한다(박휴용, 2014).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질적제고를 위해서 신문기사, 정부보고서, 선행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른 지위나 위치에 있는 청년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해석과정에 있어서는 자료의 해석이 적절한지에 대해 청년, 지역활동가, 학계 전문가들과 자료해석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IV

## 분석결과

### 1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 1) 주요 단어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과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 11>과 같이 단어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어빈도분석결과에서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에서는 주로 지역, 가능성, 도시, 청년마을만들기사업, 고향, 이주, 도시생활어려움, 고민, 관계, 삶의질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청년의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에서는 유입인구, 인식, 인구감소, 공무원, 고령인구, 일자리, 지자체장, 빈집, 상권, 청년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과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상위 10개 주요 단어들로 나타난 단어들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단어들을 중심으로 분석과 해석을 진행하였다.

<표 11> 상위 10개 주요 단어빈도 분석결과

청년의 지역정착 요인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지역	43	1	유입인구	17
2	가능성	34	2	인식	15
3	도시	29	3	인구감소	11
4	청년마을만들기사업	27	4	공무원	10
5	고향	26	5	고령인구	9
6	이주	26	6	일자리	6
7	도시생활어려움	24	7	지자체장	4
8	고민	21	8	빈집	2
9	관계	16	9	상권	2
10	삶의질	12	10	청년	2

#### 2)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

중심성 지수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우선, 청년 지역정착요인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지수에서 지역, 가능성 단어의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도시, 도시생활어려움, 이주, 고향, 삶의질, 관계, 청년마을만들기사업, 청년, 고민, 노력, 초기, 정착, 어려움 단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유입인구 단어의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식, 공무원, 지자체장 등의 단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년의 지역정착요인에서 가능성, 도시, 도시생활어려움, 이주, 고향과 관련된 의미의 지역정착 영향요인들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유입인구, 인식, 고령인구, 일자리, 청년 등과 같은 의미가 지역문제인식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러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의 지역정착요인의 매개중심성 지수에서 도시생활어려움과 고향 단어들이 연결중심성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인 언어 네트워크에서 연관성이 크지 않은 단어들을 도시생활어려움, 고향 단어가 매개하여 상호연결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도시생활어려움, 고향과 관련된 의미가 다양한 의미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중심성 지수 분석 결과

청년의 지역정착 요인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						
순위	단어	연결	단어	매개	단어	위세	순위	단어	연결	단어	매개	단어	위세
1	지역	14	지역	7.321	지역	0.090	1	유입인구	7	유입인구	1.000	유입인구	0.275
2	가능성	14	가능성	7.321	가능성	0.090	2	인식	3	인식	0.636	인식	0.120
3	도시	12	도시생활 어려움	2.654	도시	0.077	3	공무원	3	공무원	0.636	공무원	0.120
4	도시생활 어려움	12	도시	2.654	도시생활 어려움	0.077	4	지자체장	3	지자체장	0.636	지자체장	0.120
5	이주	12	고향	1.750	이주	0.076	5	인구감소	2	인구감소	0.583	인구감소	0.090
6	관계	12	삶의질	1.750	관계	0.076	6	고령인구	2	고령인구	0.583	고령인구	0.090
7	고민	11	이주	1.654	고향	0.071	7	일자리	2	일자리	0.583	일자리	0.090
8	고향	11	관계	1.654	삶의질	0.071	8	청년	2	청년	0.583	청년	0.090
9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1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0.833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0.070	9	-	-	-	-	-	-
10	삶의질	11	청년	0.833	청년	0.070	10	-	-	-	-	-	-
11	청년	11	고민	0.571	고민	0.070	11	-	-	-	-	-	-
12	노력	7	노력	0.0	노력	0.048	12	-	-	-	-	-	-
13	초기	6	초기	0.0	초기	0.042	13	-	-	-	-	-	-
14	정착	4	정착	0.0	정착	0.031	14	-	-	-	-	-	-
15	어려움	4	어려움	0.0	어려움	0.031	15	-	-	-	-	-	-

위의 중심성 지수를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언어네트워크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청년의 지역정착 요인에서는 가능성 측면, 도시생활어려움 측면, 고향 측면으로 구분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우선, 가능성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의 가능성을 보고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들에게 지역활동가의 도움으로 인한 좋은 조건형성, 지자체의 지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역에서 청년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이주 초기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역 자원이 있어서 지역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지역을 선택한 때는 무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같이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청년단체 C)

“단순히 저는 가깝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부지를 알아보는데 너무 배타적이었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좁 거치셨어요. 간섭도 하려고 하시고, 마을 발전기금은 얼마 낼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지역청년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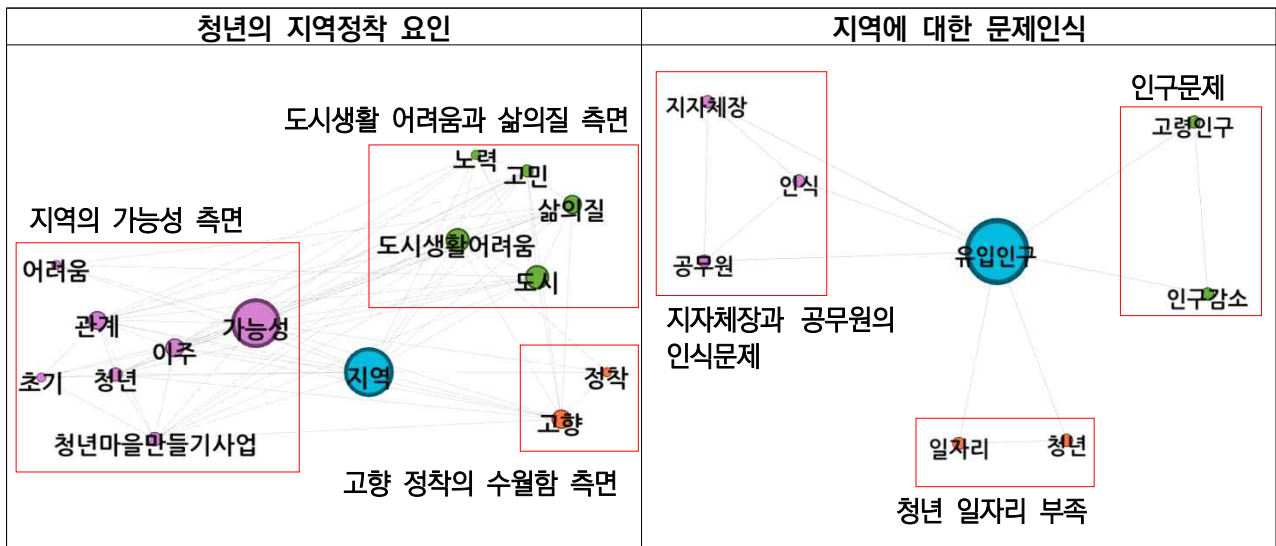
두 번째로, 도시생활어려움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도시생활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의질 하락에 따른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이주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후에는 은행 집이 아니라 내 집 하나는 갖고 있겠다. 그걸 위해 희생하면서 살자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 여건으로 한 번 흔들려버리니까 모든 게 무너지면서 굉장히 허무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어쨌든 제 몸에도 이상이 왔었고, 그래서 이런 도시의 삶이 맞나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년단체 L)

세 번째로, 고향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고향이라는 연고와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으로의 정착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U턴 청년들에게는 고향이라는 점 때문에 지역으로 이주를 선택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연고와 기반이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일단 이 지역이 제 고향이거든요. 특별히 이 지역을 선택했다기 보다는 고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고향이기 때문에 확실히 누리는 이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네트워크 같은 것도 부모님 혹은 기존에 제가 지역에 형성했던 인맥으로 쉽게 협상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청년단체 K)

〈그림4〉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에 관한 언어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청년의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에서는 청년들은 지자체장과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서 지자체장과 공무원의 인식개선과 무관심, 인구문제에서는 고령인구 증가와 인구감소, 청년의 일자리에서는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증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지자체장과 공무원은 인구 한 명 줄고, 늘어나는 양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지자체장은 건물 늘리고, 지역축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자체장의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청년단체 A)

## 2

##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결과

## 1) 주요 단어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과 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 13>과 같이 단어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어빈도분석 결과의 조직 구성위간 관계에서는 결속, 느슨한 관계, 친구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 청년단체, 마을, 협력, 관계, 배타성 등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지역공무원 및 활동가의 관계에서는 협력, 청년단체, 관계, 강압적, 소모적 등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외부 조직과의 관계에서는 청년단체,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 등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에 대해 나타난 상위 10개 주요 단어들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단어들을 중심으로 분석과 해석을 진행하였다.

&lt;표 13&gt; 상위 10개 주요 단어빈도분석 결과

조직 구성원간 관계			주민과의 관계			지역공무원 및 활동가의 관계			외부 조직과의 관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결속	20	1	주민	17	1	협력	36	1	청년단체	16
2	관계	15	2	청년단체	14	2	청년단체	27	2	공유	12
3	친구	14	3	마을	10	3	관계	11	3	네트워크	10
4	느슨한관계	12	4	협력	10	4	강압적	8	4	활성화	7
5	협력	12	5	관계	9	5	공무원	8	5	행사	5
6	구성원	8	6	배타성	7	6	소모적	5	6	관계	4
7	상호작용	6	7	소통	5	7	지역	5	7	교류	3
8	사업	4	8	무관심	4	8	지역협력자	5	8	공동	1
9	직장	4	9	신뢰	4	9	요청	3	9	공식	1
10	목표	3	10	진정성	4	10	느슨한관계	2	10	단계	1

## 2)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

중심성 지수의 분석결과에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우선, 청년 조직 구성원 간 관계에서 결속, 느슨한 관계의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호작용, 관계, 구성원 등으로 나타났다.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청년단체의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민, 마을, 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14&gt; 중심성 지수 분석 결과

조직 구성원 간 관계							주민과의 관계						
순위	단어	연결	단어	매개	단어	위세	순위	단어	연결	단어	매개	단어	위세
1	결속	11	결속	10.283	결속	0.132	1	청년단체	10	청년단체	28.750	청년단체	0.190
2	느슨한 관계	10	느슨한 관계	5.950	느슨한 관계	0.120	2	주민	8	주민	7.250	주민	0.136
3	상호작용	9	상호작용	4.366	상호작용	0.109	3	마을	7	마을	1.750	마을	0.118

조직 구성원 간 관계							주민과의 관계						
순위	단어	연결	단어	매개	단어	위세	순위	단어	연결	단어	매개	단어	위세
4	관계	7	관계	1.750	관계	0.086	4	관계	6	관계	3.750	관계	0.105
5	구성원	7	구성원	1.333	구성원	0.086	5	협력	5	협력	0.250	협력	0.087
6	목표	7	목표	1.083	목표	0.085	6	소통	5	소통	0.250	소통	0.087
7	협력	7	직장	0.500	협력	0.085	7	배타성	4	배타성	0.000	배타성	0.072
8	사업	7	협력	0.366	사업	0.085	8	진정성	4	진정성	0.000	진정성	0.072
9	직장	5	사업	0.366	직장	0.065	9	호의적	2	호의적	0.000	호의적	0.041
10	친구	4	친구	0.000	친구	0.054	10	신뢰	1	신뢰	0.000	신뢰	0.028
11	신뢰	3	신뢰	0.000	청년마을	0.043	11	무관심	1	무관심	0.000	무관심	0.028
12	청년마을	3	청년마을	0.000	신뢰	0.043	12	지역사회 활동	1	지역사회 활동	0.000	지역사회 활동	0.028

지역공무원 및 활동가의 관계에 대한 중심성 지수는 협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년단체, 공무원, 지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조직과의 관계에서는 청년단체가 가장 높고, 네트워크, 행사, 관계, 활성화 등으로 중심성 지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중심성 지수를 고려하여 언어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중심성 지수 분석 결과

지역공무원 및 활동가의 관계							외부조직과의 관계						
순위	단어	연결	단어	매개	단어	위세	순위	단어	연결	단어	매개	단어	위세
1	협력	11	협력	16.500	협력	0.160	1	청년단체	5	활성화	5.000	청년단체	0.197
2	청년단체	9	청년단체	6.000	청년단체	0.130	2	네트워크	4	청년단체	4.333	네트워크	0.162
3	공무원	8	공무원	5.000	공무원	0.117	3	행사	4	네트워크	2.000	행사	0.157
4	지역	8	지역	4.000	지역	0.116	4	관계	4	행사	0.333	관계	0.157
5	관계	6	관계	1.000	관계	0.088	5	활성화	3	관계	0.333	활성화	0.141
6	강압적	6	강압적	0.500	강압적	0.087	6	공유	3	공유	0.000	공유	0.121
7	이해	4	이해	0.000	이해	0.062	7	교류	1	교류	0.000	교류	0.061
8	요청	3	요청	0.000	요청	0.049	-	-	-	-	-	-	-
9	소모적	3	소모적	0.000	소모적	0.049	-	-	-	-	-	-	-
10	지업협력가	3	지업협력가	0.000	지업협력가	0.049	-	-	-	-	-	-	-
11	변경	3	변경	0.000	변경	0.049	-	-	-	-	-	-	-
12	소통	2	소통	0.000	소통	0.037	-	-	-	-	-	-	-

위의 중심성 지수를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언어네트워크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청년의 조직 구성원 간 관계는 느슨한 관계와 결속 관계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일부 청년단체에서는 구성원이 친한 친구와 같은 결속력이 높은 관계이며,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다. 반면에, 다른 일부 청년단체에서는 회사와 같이 사업의 목표만을 공유하는 느슨한 관계를 지향한다.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달 쯤에 가족 단합대회를 열었거든요. 이제 각자의 가족을 다같이 보고 같이 웃고 즐기다 보니까 너무 편해지고 진짜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청년단체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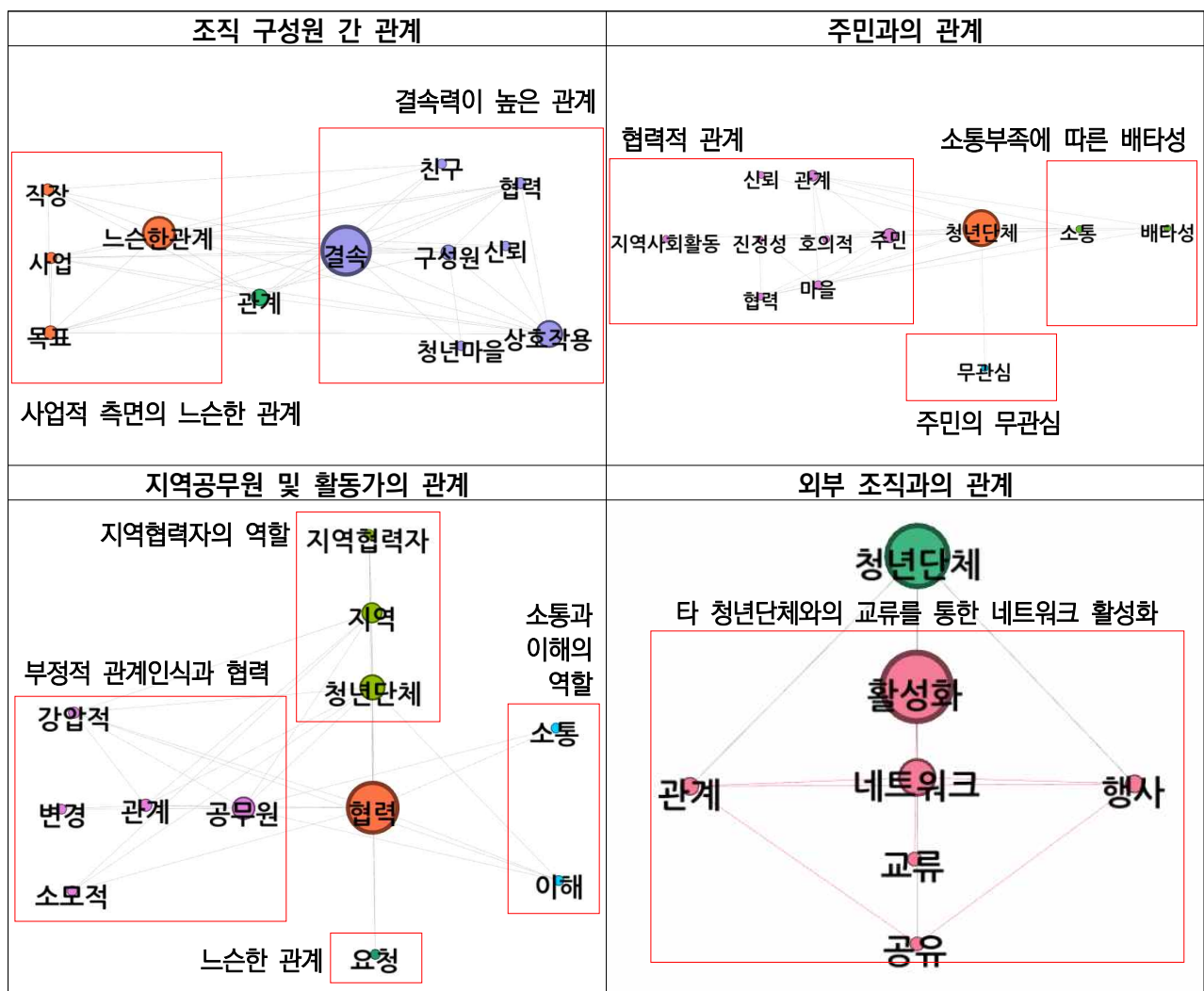
“저희는 회사예요. 회사기 때문에 회사 직원과 직원 사이의 관계인 거죠. 이제 인연보다는 그리고 좀 이제 뭔가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가 더 강하죠.” (청년단체 C)



주민과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 소통부족에 따른 배타성, 무관심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청년단체가 지역사회활동과 같은 진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또는 지역주민들은 청년단체와 소통부족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거나, 무관심한 경우도 나타난다.

“시작점은 무조건 지역 주민들과 같이 녹여드는 작업들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게 되게 약간 쇼처럼 보이면 안 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난 이후에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몸소 경험하고 난 이후에 회사가 조금 더 만들어지며 조금 더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청년단체 N)

〈그림 5〉 청년의 지역정책 영향요인에 관한 언어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지역공무원 및 활동가의 관계는 부정적 관계인식과 협력, 느슨한 관계, 소통과 이해의 역할, 지역협력자의 역할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일부 청년단체는 지역공무원의 관계를 강압적이거나 소모적 관계로 보며, 지역공무원의 요청에만 협력하는 느슨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다른 청년단체는 지역공무원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특히, 일부 지역

청년들은 청년단체에게 지역협력자의 역할을 중요하며, 지역협력자가 지역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무상 임대를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분들께서 여기도 같이 빌려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로 쓰고 있는 공간도 저렴하게 빌려주셨어요.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제공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을 선택하게 된거예요.” (청년단체 C)

“이렇게 지역협력자가 없으면 저희가 가진 자원이 문제해결에 다 들어가버리니까 저희가 성장을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고, 대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역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정말 중요해요.” (지역청년 A)

“지역에서 청년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역에 연고와 기반을 갖춘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매개자의 역할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청년들이 쉽게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이 없다는 점이 아쉬워요.” (지역청년 D)

외부 조직과의 관계는 청년단체들이 외부 청년단체들과 행사와 같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가진 문제들을 공유하고 관계를 넓혀나가는 과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서 좀 알게 됐고 그들이 진짜 마주치는 문제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있는 문제들과 너무 닮아있고 그런 것들 공유하는 게 너무 저희는 좋아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대표님들이랑 관계를 넓혀가고 있어요.” (청년단체 E)

### 3 청년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인식 분석결과

#### 1) 주요 단어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의 가치와 역할,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기반, 마련, 성장, 안정적, 중요가 중요빈도단어로 나타났으며, 방향성, 사업예산, 유형화, 지자체, 사업비가 중요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과 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 16>과 같이 단어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6〉 상위 5개 주요 단어빈도 분석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의 가치와 역할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기반	5	1	방향성	8
2	마련	2	2	사업예산	8
3	성장	2	3	유형화	8
4	안정적	2	4	지자체	8
5	중요	2	5	사업비	7

## 2)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의 가치와 역할에서 기반 단어의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유연화, 방향성에 대한 단어의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4〉 중심성 지수 분석 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의 가치와 역할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순위	단어	연결	단어	매개	단어	위세	순위	단어	연결	단어	매개	단어	위세
1	기반	3	기반	2.000	기반	0.366	1	유연화	8	방향성	24.983	유연화	0.123
2	중앙정부	2	중앙정부	0.000	중앙정부	0.245	2	방향성	7	지속 가능성	12.500	방향성	0.121
3	중요	2	중요	0.000	중요	0.245	3	유형화	7	지역	11.000	유형화	0.110
4	지원	1	지원	0.000	지원	0.141	4	협력	6	유연화	10.066	지속 가능성	0.101
5	-	-	-	-	-	-	5	지자체	6	유형화	6.650	사업예산	0.094
6	-	-	-	-	-	-	6	사업예산	6	사업예산	2.833	협력	0.093
7	-	-	-	-	-	-	7	지속 가능성	6	협력	1.983	지자체	0.093
8	-	-	-	-	-	-	8	사업	3	지자체	1.983	지역	0.056
9	-	-	-	-	-	-	9	경직화	3	사업	0.000	경직화	0.052
10	-	-	-	-	-	-	10	사업비	2	경직화	0.000	사업	0.051
11	-	-	-	-	-	-	11	지역	2	사업비	0.000	사업비	0.039
	-	-	-	-	-	-	12	지역정착	1	지역정착	0.000	지역정착	0.035
12	-	-	-	-	-	-	13	재정	1	재정	0.000	재정	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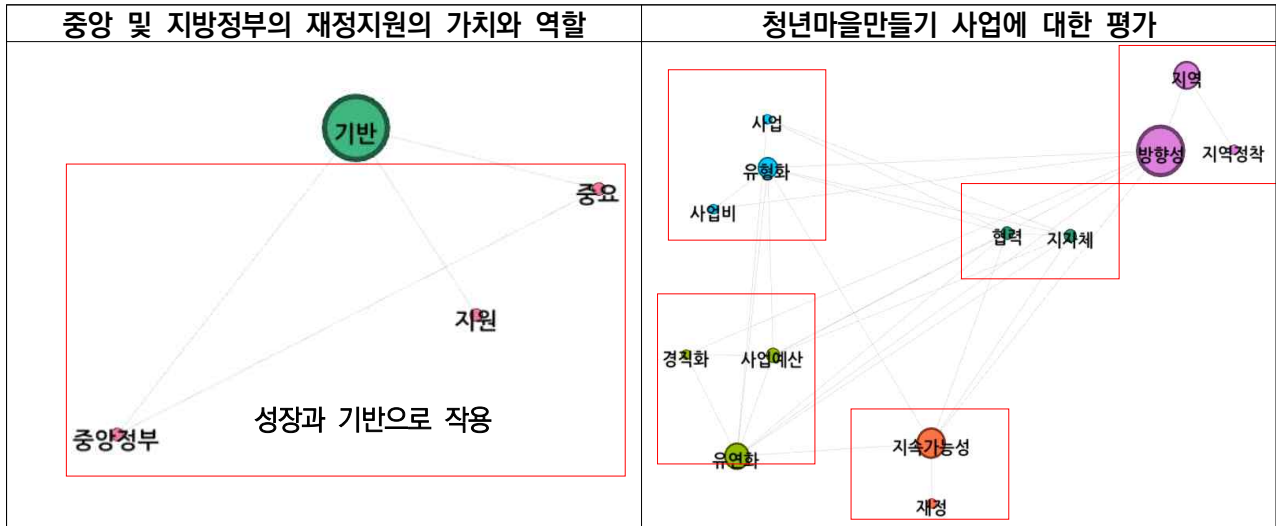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와 시각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의 가치와 역할 영역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청년단체에서 성장과 기반으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사업비의 경직화로 인해 예산사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또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이 청년단체는 지역정착, 정부는 관계인구로 불일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비가 각 사업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인구소멸지역과 같은 마을에 활력이 될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러한 청년마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및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주거, 창업, 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정착 및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청년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단체 C)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희는 1년 내내 이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제 또 그런 정산 아니면 또 매년 매년 이제 사업비가 나오는 구조니까 아마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자체나 약간 이런 분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제 결국에는 그게 평가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다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냥 잘 통과해 주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행안부의. 근데 어쨌든 그 지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청년단체 1)

〈그림4〉 청년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영역의 언어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 4 분석결과에 대한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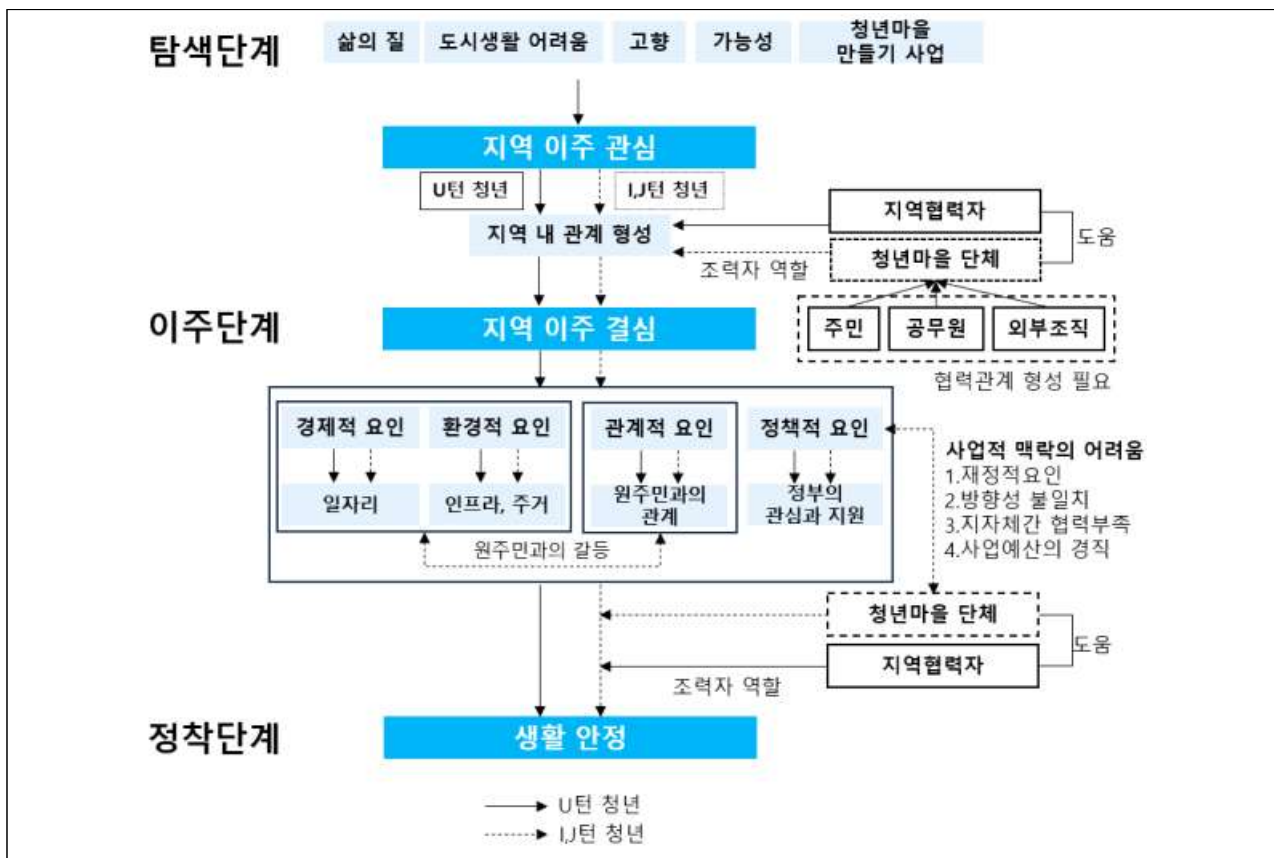
위의 분석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들은 도시생활의 어려움, 고향, 가능성, 청년마을 만들기,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이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지역정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거비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고려한다는 김화연·이대웅(2022), 이경영·정문기(20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이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능성의 측면은 청년들에게 지역활동가의 도움으로 인한 좋은 조건형성, 지자체의 지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역에서 청년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역에 이주한 청년들은 구성원들과 친한 친구와 같이 결속력이 높은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일부 청년단체에서는 회사와 같이 사업의 목표만을 공유하는 느슨한 관계를 지향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청년단체가 지역사회활동과 같은 진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또는 지역주민들은 청년단체와 소통부족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거나, 무관심한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은 지역정착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엄창옥 외, 2018; 김훈규, 2016; 정하나, 2022; 황원규, 2022).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청년들은 청년단체에게 지역협력자의 역할을 중요하며, 지역협력자가 지역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에서 지역협력자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청년단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지역에서 청년이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관계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정착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협력자 또는 청년마을 단체의 조력자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청년들이 이주 초기에 연고와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I,J형)이 단독으로 환경을 준비하고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에, U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연고와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정착하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에서는 관계가 가지는 의미가 수도권 지역 또는 대도시보다 크다. 이에 따라, 좋은 일자리와 주거지가 있어도 관계의 정도에 따라, 일자리와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계 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역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청년마을 단체의 역할과 지역협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마을 단체는 재정적 요인, 방향성 합의, 지자체 간 협력, 사업예산의 유연화 등의 작용으로 인해서 조력자의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청년들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이주와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가능을 위한 고민, 정부의 관계인구 활성화 방향성과 청년단체의 지역살이 방향성에 대한 불일치, 지자체의 강압적이고 소모적인 관계, 사업예산의 획일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 4-5월부터 시작되어 12월에 끝나는 경우에는 4개월동안 청년단체는 고정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개인이 지출하거나, 낮은 인건비로 인해서 직원을 12월부터는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청년마을을 단체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관계형성과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년마을만들기의 사업적 맥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단체가 이주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지역협력자의 도움도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협력자들이 청년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그림4〉 분석결과 종합





## 결론

본 연구는 심층면접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청년의 지역정착 영향요인,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 청년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탐색단계의 지역정착의 영향요인 측면에서 청년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 고향 지향, 자연환경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고, 경제활동 차원에서는 도시에서의 재정적 고민, 정책 및 사업 차원에서는 지역의 가능성,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이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이주한 청년들(I,J턴형)은 연고와 기반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 지역 출신 청년(U턴형)보다 지역에 이주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지역협력자의 도움으로 지역 내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에 기반형성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주한 청년들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마을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지역 내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이주에서 정착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관계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 단계에서 청년의 경제적 요인인 일자리, 환경적 요인의 인프라와 주거, 관계적 요인의 원주민과의 관계, 정책적 요인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이 일자리, 인프라, 주거가 갖추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원주민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에 정착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단체의 경우에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할 때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지역협력자와 청년마을단체의 조력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정착을 결심한 청년들이 원주민들의 텃세로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에 청년마을 단체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여 주거비용을 적정한 비용으로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청년마을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적 요인으로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청년, 지역주민, 활동가, 공무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구조 측면에서 외지청년과 지역청년 간에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확대되지만,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래된 청년단체는 이러한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이 차츰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공무원 간의 관계 측면에서는 서로 인지하지만 더 협력하고 신뢰하는 네트워크의 관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일자리, 인프라, 주거 등과 같은 요인과 함께 관계적 요인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적 요인을 형성 및 발전시키는 역할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마을 단체들이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 사업체가 없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청년마을단체들은 지원이 종료된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매개적인 역할로 관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청년마을단체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본 연구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청년의 이주 및 정착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온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의 대상지역을 분석하였다. 그간 사업경험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이주 및 정착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발판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운

영 상에 개선할 부분들이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청년의 지역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의 지역정착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완주, 강원, 대구, 전북 등과 같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고가온, 2019; 김화연·이대웅, 2022; 엄창옥 외, 2018; 이경영·정문기, 2021),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강유미, 2022; 박진경·김도형, 2022)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는 지역적 맥락에 따라 청년의 지역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지역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지역정착에 미치는 과정이 청년의 정착주기별로 다르게 작용하며, 그 과정들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네트워크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의 지역정착은 일자리,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 청년참여, 청년정책만족도, 보건 및 복지여건, 자연환경인프라, 청년공간, 사회 관계망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가온 외, 2019; 김화연·이대웅, 2022; 박진경·김도형, 2020; 엄창옥 외, 2018; 이경영·정문기, 2016). 청년의 지역정착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여 청년인구의 지역정착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청년의 지역정착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엄창옥 외, 2018),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례분석결과에서 청년의 지역정착에 있어서 일자리, 인프라, 주거 등이 충족되더라도, 지역주민, 활동가, 공무원 등과의 관계가 부족하면 기반형성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단체들이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앞선 논의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행 주체들의 의견에 기반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역할별로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사회에서 관계인구 확대, 청년들의 이주와 정착, 청년들의 발판이 되어주는 긍정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주체들의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청년단체가 관계인구에 중점을 두는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청년단체들은 지역에서 관계인구의 확대와 지역사회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즉, 청년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사업체 또는 일자리가 잘 운영되어 지역에 잘 정착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방향성을 더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불일치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한 후에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종료되면 지원을 받지 못해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청년들이 자신의 생활의 대부분을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할애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련 주체들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합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마을만들기 사업모델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단체들이 중점을 두는 사업모델은 창업, 문화기획, 지역상품개발 및 판매, 관광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하는 지표는 이러한 사업모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즉, 지표에서 이런 사업모델의 다양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지표가 일정하니, 모두 지표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지표에 중점을 두고 관광 또는 문화 중심의 돈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버릴 수 있다. 청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이어도, 정착인구와 관계인구가 크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지표에서 사업모델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지방정부는 청년의 이주 및 정착단계를 고려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지역에 이주하고 정착하는 경우, 예산기간에서 창업지원금은 2-3월에 끝난다. 하지만, 청년마을만들기 예산은 4-5월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적절한 창업지원받기 어려워지며,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이주 및 정착하는 단계를 고려하여 청년 창업지원과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이 서로 연계되어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예산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단체들은 4월에서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12월에 사업을 종료한다. 즉, 청년단체들은 5-6개월만에 2억 원의 지원금을 사업으로 지출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청년단체들은 사업모델의 특성 또는 경험축적의 부족으로 1년 차에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 매년 2억 원을 소진해야하기 때문에 청년단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다. 또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년단체들은 매해 사업기간이 종료되면서 4개월 동안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청년단체가 고정비용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청년단체가 사업예산을 규정 안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대한 정부와 청년단체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에서 청년단체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청년단체의 동원이 아닌 실질적인 필요영역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방법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의체의 형태로 지역에서 청년들의 네트워크 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여섯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이나, 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청년단체들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 요인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나, 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수 있다. 즉,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이나 조례 제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청년단체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언론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청년마을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년마을에 대해서 인지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청년단체와 정부는 다양한 청년들이 청년마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지역에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매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청년이 정착하기 위해서 일자리, 주거, 인프라 등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의 관계형성도 중요하다. 지역에서는 관계가 가지는 의미가 수도권 지역 또는 대도시보다 크다. 이에 따라, 좋은 일자리와 주거지가 있어도 관계의 정도에 따라, 일자리와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계 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지역에서 청년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관계의 매개자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지역에서 관광두레라는 역할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관계의 매개자를 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마



을만들기 사업에서 청년단체가 원활한 관계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단체와 주민 간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에 청년들을 이주 및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삶에 이러한 사업이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주민들과도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심층 인터뷰 대상과 전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의 청년단체를 분석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의 청년단체들이 모두 포함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이 39개 청년단체로 양적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운 규모지만, 향후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양적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이 청년의 지역이주와 정착을 위한 정책수단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연구들에 조그만 기여를 하리라 예상한다.



## 참고문헌

- 강유미. (2022). 기초자치단체 청년 정책지향이 청년 이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5: 25-53.
- 고가운 · 김희수 · 정석. (2019). 완주군 청년공간이 청년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6): 103-118.
- 곽기영. (2017). 「소셜 네트워크 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 김순양. (2010).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 이론적 · 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19(4): 177-209.
- 김화연 · 이대웅. (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 청년정책과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261-288.
- 김훈규. (2016). 청년이 들어간 농촌, 마을에서 상상하는 축제. 「로컬리티 인문학」, (15): 317-339.
- 박진경 · 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휴용. (2014). 「초보 연구자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전북: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소순창 · 유재원. (2005). 로컬 거버넌스로의 짧은 여행과 새로운 여정: 정책과정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299-319.
- 안희남 · 이승철. (2012). 교환 거버넌스로서 네트워크 조직의 본질과 쟁점. 「한국자치행정학보」, 26(1): 219-240.
- 엄창욱 · 노광욱 · 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 259-283.
- 이경영. (2020). 「지방중소도시 경제활동인구의 정주성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이곤수 · 송건섭. (2011).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 평택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2): 487-509.
- 이미애 · 이승중.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Kee 6 자본 모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5(2): 1-29.
- 이수안. (2017). 도시공간 향유의 인스타그램 분석과정에 대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적 해석. 「사회사상과 문화」, 20(1): 219-254.
- 이영균 · 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 이지은 · 이승중 · 이혜림. (2020). 공공서비스 기대불일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3): 7-37.
- 이희창 · 박희봉 · 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8.
- 정보라. (2022). 보컬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정책: 지역기반 혁신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희망이슈 No.66」.

- 정하나. (202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의 어려움과 부모의 사회자본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사회』, 32(1): 67-108.
- 최현영. (2022.12.16.). 경북도, 청년마을 확산·기여..대통령 기관 표창.  
경북인터넷뉴스. [http://gbin.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30330](http://gbin.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30330)
- 행정안전부. (2023). 「2023년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계획」. 세종: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Hosnedlová, R. (2017). Embedded Settlement Intentions: The Case of Ukrainians in Madrid. Social Networks, 49: 48-66.
- O'Toole Jr, L. J. (1997). Treating Networks Seriously: Practical and Research-Based Agendas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1): 45-52.